

중국인도 보기 힘든 중국 국보展

서울역사박물관 8월 26일까지/대구 계명대박물관 9월 1일부터

불상과 석상, 장식물 등 중국 국보급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인기를 끌고있다. 지난달 23일 개막해 8월 26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서 열리는 '중국 국보전'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고대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중국 39개 박물관과 연구소에서 '징발' 한 한(漢)-당대(唐) 문물 총 325점이다. 이중 국보급 유물이 150점 이상이나 되는 등 국내 전시사상 최대규모의 국보전이다. 서울 전시가 끝난 뒤에는 대구 계명대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9월 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계속된다.

전시품으로는 2천년 전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술단지과 그에 담긴 술, 창사(長沙市) 마왕퇴(馬王堆) 한묘(漢墓, 한나라시대 무덤) 출토 '롱코트'인 자수 견직물 옷옷(사면포), 간사한 사립만 잡아먹는다는 전설의 동물인 동한(東漢) 시대 동물 조각상, 서기 1세기 무렵의 로마 유리병이 포함됐다.

불자라면 관심 깊게 쟁거볼 전시품들도 제법 있다. 우선 제 4전시관을 찾으면 머리 에 쓴 보관위에 아미타불을 새겨 넣은 전형적인 관음상인 '관음보살 좌상'이 있다. 조각이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좌상 앞에 서면 마치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외에도 석조미륵불상, 미륵반가상 등은 좀처럼 쉽게 접할 수 없는 국보급 중국 문화재 들이다. (02)3676-784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관음보살 좌상'

불교문화재 등 325점 전시

관음보살 좌상 살아있는 듯

■ 눈여겨볼만한 국보급 불교유물

▲ 석조미륵불상(하북성 발물관 소장, 북위시대(386-534), 높이 44cm) 머리에는 보관(寶冠)을 쓰고 두건을 들었다. 상체는 드러냈으며 구슬 목걸이를 걸었다. 긴 치마를 입은 채 손은 합장했고, 두 마리 사자를 둔 좌대 위에 다리를 교차하고 앉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석조불상 중 하나다.

▲ 앉아있는 금동부처(하북성 문물보호 중심 소장, 심육국시대(304-439), 높이 214cm) 앉은 부처와 두 제자를 표현한 도금 불상이다. 주존(主尊)은 상투를 높게 틀었으며 움모가 빼어내고 대의(大衣)를 입었다. 또한 가부좌를 틀고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네모난 좌대(座臺) 위에 앉았다. 좌대 밑에 다리가 네 개인 네모난 평상을 놓았다.

▲ <법구경>(감숙성 발물관 소장, 전량 시대, 세로 24.9cm, 가로 135cm) 전권 67행이며 매 행마다 각각 16-24자로 짜여 있어 행마다 글자 수가 다르다. 예사체 분위기를 짙게 풍긴다. 책이 나온 시기는 동한 마고갈(莫高窟)이 건설된 시기와 가깝다.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서 중 하나다.

▲ 한쌍의 미륵반가상(하북성정정현물 보관소 소장, 북조시대(550-577), 높이 93cm) 조각과 부조 기법으로 만들었다. 정면에

조각한 두 보살은 나무줄기를 틀어 아치 모양으로 서로 연결했으며, 그 안에는 쌍미륵상이 반가부좌를 틀고 대칭으로 앉았다. 양쪽에는 협시(偕侍) 보살이 섰다.

▲ 채색을 한 입상(산둥성 임구시 박물관 소장, 북조시대(550-577), 높이 44cm) 과도 모양의 머리카락에 낮은 상투를 틀었다. 두 눈은 살짝 감았으며 검은색 눈썹에 입술은 붉고 코끝이 작으며, 검은색으로 작게 '필(鬚)' 자 모양의 수염을 그렸다. 이 불상은 북조 시대 석상 가운데서 종교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빼어난 조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보관위에 아미타불이 있는 관음보살(서안비림박물관 소장, 당나라, 높이 75cm) 머리에 쓴 보관 위에 아미타불을 새겨 넣은 전형적인 관음상이다. 보관의 양쪽에는 각각 띠를 하나씩 어깨 위로 드리웠다. 손에 연꽃 봉오리를 든 보살의 모습이 마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듯하다.

▲ 서 있는 보살상(하북성발물관, 당나라, 높이 158cm) 머리와 원팔, 오른손은 파손되었다. 보살은 어깨가 넓고 가슴이 풍만하며 허리는 가늘고 배는 약간 나왔으며 연화대(蓮花臺) 위에 맨발로 섰다. 상체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 'S'자 행이다. 긴 치마를 입었다.

염불 편곡한 '나무아미타불' 등 선사

범승 스님, 16일 조계사 공연



승려가수 범승 스님(사진)이 서울 첫 나들이 공연에 나선다.

범승 스님은 6월 16일 서울 조계사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황금을 우박 같이 쏟아 부을지라'

도'라는 주제로 첫 단독공연을 갖는다. 주제는 물질만능 시대를 돌아보며 바른 삶의 이정표를 함께 세워가자는 의미로 <법구경 불타품>에서 따왔다.

범승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 '먼 산' 바람이 오면 '무소의 뽕처럼' '나무아미타불' '푸른 학으로' 등 14곡을 부를 예정이다. 이중 염불을 편곡한 '나무아미타불'은 신부와 목사 등 타종교 성직자들도 기도전 즐겨 들을 정도로 내적인 평안함을 선사해 준다.

전문 음악인으로 손수 편곡까지 도맡아 하는 범승 스님은 대중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노래로 한국 불교음악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다. (061)372-5521 김주일 기자

'발굴에서 전시까지' 특별展

사찰과 왕궁 등에서 발굴된 유적을 한 데 모은 특별전 '발굴에서 전시까지'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7월 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경주 분황사, 양양 낙산사, 전북 익산시 왕궁리 유적 등 중요 유적지 27곳에서 발굴한 유물 772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경주 분황사에서 발굴된 국내 최고(最古)의 비두판은 수년에 걸쳐 출토한 희귀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품뿐만 아니라 발굴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도 선보인다. 발굴 당시의 어려움이 생생히 소개돼 유물이 주는 감동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2077-9000 김주일 기자

득산 스님 경화 개인展

달마대사가 한지가 아닌 무명천과 돌에 그려져 있다. 득도달마선원 주지 득산 스님은 달마도를 그리는 화단에 차별이 없다. 표정도 제각각이다. '근엄한 달마' '익살스럽게 웃는 달마' '인자한 달마' 등등. 득산 스님은 수년간 공들여 화단에 옮긴 다양한 달마를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마련한다. 6월 17일까지 대덕문화전시관 1층 대덕전시실에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도 달마도'와 '중국 달마도'도 전시된다. '인도의 전통적인 얼굴형 속에서 신, 교, 기가 내포된 웃는 달마도를 인도 달마도라고 정한 반면에 중국 선사상의 시조답게 근엄한 모습을 중국 달마도라고 불어 봤습니다.' (054)452-1323 김주일 기자

1998년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

90년대 후반

90년 후반 들어 한국불교음악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불교계에 사단법인화된 음악협회가 동시에 두 개 생긴 것이다. 하나는 (사)삼보불교음악협회(이사장 운문스님)이고 (사)불교음악협회(회장 반영규)이다. 이 두 단체의 모체는 1989년에 정부기 교수와 반영규씨, 능인선원합창단 단장 권능인행, 경국사합창단 단장 이공덕행과 두 합창단의 지휘자였던 필자 등이 모여서 만든 제3세대 불교음악연구회였다.

1993년 11월 13일 불교음악의 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불교음악연구회'로 명칭을 바꾸어 한국음악협회에 등록했다. 제2대 회장은 정부기 교수가 맡았다. 이후 98년 9월 대구지회 회원들과 불교음악의 미래를 토론하면서 운문스님의 공로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 이달철 대구지회장은 "안선생, 운문 스님의 음악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대대적으로 개최하는게 어때? 그리고 주회를 제3세대 불교음악연구회보다는 한국불교음악협회로 개정해 모든 불교음악인들이 함께 준비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어?"라는 제안을 했다. 참석한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이 뜻을 전국에 있는 불교음악인

들에게 알렸고 대다수가 찬성해 1998년 10월부터 가정 제 3세대 불교음악연구회를 한국불교음악협회로 명칭 변경했다.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과 더불어 운문 스님의 불교 음악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음악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회원가입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반영규씨와 박범훈 교수가 협회 동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위원장인 김동환 교수는 반영규 씨를, 박범훈 교수는 필자가 국립극장으로 찾아가 협회 등록을 권했으나 둘 다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바

운문 스님 기리는 음악회 준비위 구성도 삼보불교·한국불교음악협회로 나뉘어

결어와 불교음악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만나자고 해 남산 타워호텔 커피숍에서 필자가 중앙대 교육대학원 논문을 쓰기위하여 준비하던 자료를 모두 가지고 박범훈 교수를 만났다. 그 자리에는 반영규씨도 와 있었다. 박 교수는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화가 몇 마디 진행될 때쯤 박범훈 교수는 다른 손님이 찾아와 자리를 옮기면서 반영규씨와 잘 상의해 보라고 하며 자리를 떠났다. 필자와 반영규씨의 대화는 간단하고 명료했다. "협회 만드는 것을 없던 것으로 해" "왜요?" "어른이 말하면 그렇게 해" "그러면 운문스님과 김희조선생님은 어른이 아니신가요?" 대화는 이렇게 결론없이 끝났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詩書로 떠나는 임지기행 ⑭

조계산 불일암

장인성 시인



산중에 빈집이 들어섰더니 마당에 빈 의자만 손님을 맞게 그리움도 지니면 집이 된다 그마저 벗어놓고 돌아서라네.

불일암(佛日庵)-무소유의 수도승 범정 스님이 승광사 경내에 세운 암자 그림: 이상배 화백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통**,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통>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통 5권 - 5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 (30%할인)

- 바로보인 전통 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계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 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복제로 세상을 복삭아
- 앞뜰에 국화꽃 피고 북산에 처는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經典專門講座

한국평생대학 경전학부에서는 불교인구의 저변 확대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전 전문강좌를 열고 있으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1. 모집시기: 6월·12월 (지방 교육원에서 접수)
2. 수강자격: 경전 가르침에 따라 수행 하실 분
3. 강좌과목:
 - 법화경 (불교 최고의 경전)
 - 황제내경 (중국 고대의학 원전)
 - 수행자유법 (심신수행, 생활의학)
4. 강좌일시:
 - 대구 > ① 화요일 오후 2시 - 4시(평일반)
 - ② 토요일 오후 2시 - 4시(주말반)
 - 부산 > ① 목요일 오후 2시 - 4시(오후반)
 - ② 목요일 저녁 7시 - 9시(저녁반)
5. 강좌장소:
 - 대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 빌딩 3층
 - 부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 2층
6. 기타특전:
 - 수학증서 수여 (1년 단위)
 - 기부함께 등록시 한명은 회비 면제
 - 군,경,소방,교정직 근무자 회비 50% 할인
7. 문의전화: 053)952-8711 /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76-25번지

교육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韓國平生大學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정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근면의 윤남성 차업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갱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 전시된 보이차·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